

시설채소연구회 180여 농가 한마음 잔치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하나된 계기



포천시 시설채소연구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된 체육대회에서 가산연합회와 일동연합회가 추극사합을 하고 있다.

포천시시설채소연구회(회장 양문석)는 지난 1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관내 14개 연합회 및 작목반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 중 연구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정보교류 및 주인의식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축구, 여자 400m 계주, 축구 및 노래자랑 순으로 치러졌다. 가산연합회, 송우리연합회, 일동연합회, 바위작목반, 영중·영북·포천연합회가 맞붙은 축구에서는 송우리연합회가 우승을 차지했고, 7팀씩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한 여자 400m계주는 화산작목반이 일동연합회와 왕 뒷밭작목반을 제치고 1위의 영예를 안았

다. 또 축구는 송우리작목반이 화산작목반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양문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시설채소연구회는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하나된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에는 포천시와 협의회 공식대회를 출범시킬 예정인 만큼 회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시시설채소연구회는 현재 관내 178개의 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총450ha(2003년 기준)의 면적에 시설하우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 210억원(2003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지학배기자 94spice@hanmail.net

한국 기업인 中 무비자 입국 기업인여행카드 소지자 최장 60일간

현재 한국 포함 14개국 가입
자본금 500억원 이상 기업 대상

한국의 기업인들이 비자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소지한 기업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수속라인을 통해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무비자 입국은 중국이 지난 9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료회의에서 ABTC 신청자의 입국허용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APEC 권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ABTC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지난 8일부터 사증 없이 중국에서 1회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카드발급신청일 전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입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외국투자유치금액이 미화 1000만 불 이상인 기업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입원 뿐 아니라 해외업무 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ABTC를 발급할 방침이다.

현재 ABTC 가맹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칠레, 홍콩 등 13개국이며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부터 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맡아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인은 전년도 기준으로 ABTC 참가국과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나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실적이 있어야 하며 무역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무역협회에 구비된 가입신청서, 추천의뢰서, 3년 이상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 사본, 상업 등기부 등본, 수출입 실적 또는 해당국 직접투자유치액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기존 카드 소지자들이 중국 무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탐 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주)부농

옥수수전분 · 각종볶음 · 분쇄 스팀 전문



대표 나제원

옥수수전분은 포도당이 종합체의 형태로 저장된 천연의 고분자 에너지로서 우리의 전통발효식품이나 감미물질의 원료로 이용되는 중요한 식품원료로 알려져 있다.

악방의 감초적인 옥수수전분을 1차로 가공하며 김가네, 빙그레, 삼양제넥스 등 유명업체에 전량을 공급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부농 (포천시 가산면 금원리 60-6 대표이사 나제원).

공급받아 좋을 것이며 다방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니냐?"며 "이러한 사항을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조희 시간을 통해 숙지 시켜주며 협력업체들과 유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미국산 식용금지 유전자변형(GMO) 옥수수가 섞인 수입옥수수가 식용용으로 국내로 유통되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주)부농은 가격은 비싸더라도 브라질산 옥수수만을 고집해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5-6개 정도 되는 동종업체의 제품보다 구수하고 맛있다고 고객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주)부농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100% 내수로 이용되며 국내에서 맛과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고객만족을 목표로 내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직원들은 내일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문 제작된 설비시스템이 생산성도 높이며 동시에 인력난도 해소하며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고 있어 능률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침체된 국내경기의 여파로 원료가 30% 이상 뛰어 올라서 마진율이 턱없이 낮으나 나 대표이사과 전 직원들은 경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월 40톤 정도의 옥수수전분을 생산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청결, 신속, 제품의 정확한 납기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주)부농은 가산면 마전리에서 출발 현재 위 소재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주 가공원인 옥수수전분과 각종볶음, 분쇄, 농산물가루 등을 취급하고 있다.

(주) 부농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는 경영마인드로 최상의 제품을 청결, 신속, 정확한 납기로 고객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는 "내 자신이 언제나 손해 본다 고 생각하며 제품을 만들어 업체에 공급하면 우리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좀 더 질 좋은 제품을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인정 받기까지는 다양한 노후가 필요하며 옥수수전분은 수분함량, 기후, 날씨, 습도 등에 민감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엔 세심한 주의력과 실천 경험이 요구된다고 한다.

(주)부농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쇄, 볶음, 스팀, 건조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동시장에서 위탁받은 인진 속과 한약재에 필요한 약초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문의 031)544-3347~9 HP 017)353-3348



차별화된 경영방식으로 내일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주) 부농.

인터뷰 ● 정근직 포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포천 상공장려관 개관, 수출활로 모색해야”

지난 2월11일 인가를 받아 출범한 포천상공회의소는 4월29일 회장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업무추진의 중심에 서 있는 정근직(54·사진)사무국장을 통해 포천상공회의소의 활동상을 파악했다.

관내 2천500여개 사업체 중 6개 월만에 500여개 사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20%의 가입율을 보인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하는 정 사무국장은 "비전이 없는 것을 비전있는 것으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포천시는 의정부와 철원 사이에 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포천시는 의정부시의 도시성격과 철원군의 농촌 성격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복합시로 개발해야 한다.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난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출근시간에는 1시간이상 소요된다. 100명이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100시간이

걸에 버려진다. 10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15명 정도가 하루 일하는 시간을 길 바다에 버리는 결과다. 5명이 운영하는 공장 3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 사무국장은 따라서 교통난 해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보다는 전철유치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중앙전철기지를 포천으로 이전해서라도 전철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 사무국장은 포천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사업 ▶기업애로사항 청취 ▶구인구직 창구운영 ▶검정사업 실시 등이

중요사업이라고 밝혔다. 교육사업의 경우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 회원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기업애로사항 청취는 항상 회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구인구직창구를 개설하여 회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2005년부터는 검정사업을 실시해 각종 자격증 시험을 포천에서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천에 상공장려관을 신축하여 해외 바이어들이 언제

어느때라도 포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 정 사무국장은 포천의 지가를 높여 투자자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포천에 유치하여 철원과 포천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유통시켜야 한다.

“포천 가면 농산물을 싸게 상상한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야 한다.

정 사무국장은 포천상공회의소가 독립해서 종합적인 경제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포천시의 경제인인 도움으로 상공장려관을 신축하여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출상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포천상공회의소의 든든한 일꾼인 정 사무국장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창립 멤버이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장으로 24년을 근무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년을 근무하고 포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Q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2003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위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4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A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생을 포함)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회의법에

의한 회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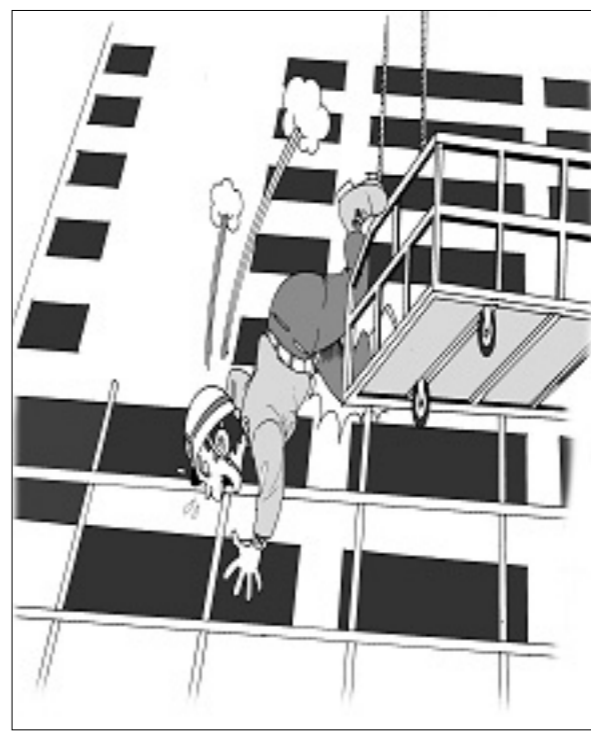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매분명세서
- 실종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매분명세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홍길동씨의 경우는, 2004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곤돌라 작업위치 이동 중 추락



재해발생상황도

0000년 1월 15:00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리공인 000가 건물 외부 유리 끼우기작업을 위해 곤돌라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하던 비계에 간섭을 받던 와이어로우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운반구 위에 있던 피재자가 약 1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의 원인으로는 첫째,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로 곤돌라 운반구에 안전난간 미설치와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시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대 및 구명줄 미설치를 들 수 있다. 둘째, 작업방법 불량으로 곤돌라 운반구의 위치를 단관 삼출비계기에 불안정하게 거치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해 곤돌라 운반구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인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에 거치 후 작업해야 한다. 둘째, 작업방법을 개선해 곤돌라 운반구 위치를 이동작업시 운반구는 평탄한 지면상에 거치하고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